

男女 고등학생의 衣生活實態에 관한 調查研究

—着用選擇基準과 着用感을 中心으로—

朴 宇 美

全南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科

A Study on the Clothing Practice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oo Mi Park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84. 2.10 접수)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the feeling of wearing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or underwear, the body appearance and the hygien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the property of matter and hygien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the feeling of wearing.
2. For outwear, a functionality and the psycholog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a selective motive of clothing. And a exeroise and the psycholog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the feeling of wearing.
3. For skirt, the psychological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the feeling of wearing. For pants, a functionality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4. A exercise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feeling of wearing with the silhouette of outwear.
5. The hygienical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mand of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for comfort.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被服은 제 2의 피부로서 環境과 人體·被服의 상호 작용으로 生理衛生的 要求에 적합해야 하고 착용습관이나 被服理念에 적합한 心理的 要求를 만족시켜 주어

야 쾌적한 착용감을 가질 수 있다¹⁾.

그런데 최근에 服飾産業의 발달로 기성복 제품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衣生活은 디자인에서부터 管理面까지 크게 변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같이 衣生活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價値觀과 服飾의 行動도 變化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着衣實態를 調査함으로써 그들의 衣生活에 대한 價値觀과 意識을 파악할 수 있다²⁾.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纖維製品消費科學會에서 被服이나 寢具 등의 着用感에 대한 意識實態調查가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고 소비자들의 要求度까지 연구 보고되어 있는 실정이다^{1~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성복제품이 대량 생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被服에 대한 착용선택동기나 착용감 등의 意識實態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기성복의 자율선택이 넓어지게 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복에 대한 着用選擇동기와 着用感을 調査하여 종합적으로 意識實態를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복식산업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제시와 피복구성학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의복설계로 건강유지 및 증진을 꾀하는 衣生活로 유도하는데 目的을 둔다.

2. 用語定義

1) 着用選擇動機: 衣服을 着用할 때 의복이 갖는 여러 기능적 측면에서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의미한다.

2) 着用感: 衣服을 着用했을 때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갖는 느낌을 의미한다.

3) 着用順位: 着用한 衣服中에서 각 衣服에 대해 피부로부터의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까지의 위치를 순서로 정한 것을 着用順位라 한다. 즉 着用枚數가 증가할수록 着用順位는 높아진다.

4) 着用枚數: 피부로부터의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착용한 의복의 총 갯수를 의미한다. 着用枚數가 증가할수록 最外衣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II. 調査方法

1. 調査對象 및 時期 方法

本 研究은 광주 시내 男女 高등학교 學生을 집단임의

추출하여 1983年 6月 20日부터 7月 5日까지 조사하였다. 調査方法은 伊藤²⁾가 제작한 道具를 번안 수정하고 보완하여 構因의 妥當度를 고려하여 2차의 예비조사를 거친후 집단조사법으로 男女 모두 600부씩 총 1,2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사용가능한 것 즉 男子는 513부, 女子는 501부의 총 1,014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기간동안의 환경기온은 평균온도 23.3°C, 습도는 80%이었다.

2. 調査內容

1) 着用衣服의 種類

<표 1>에서 본 바와같이 着用衣服種類는 上半身衣服 16種, 下半身衣服 10種으로서 착용순서별로 기록하게 하였다. 원피스형식의 衣服은 허리선을 기준으로 하여 上半身, 下半身으로 나누었다.

2) 着用衣服의 選擇動機와 着用感

着用시의 선택동기는 13개의 調査項目을 설정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착용순서별로 2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2>. 이 13개의 調査項目은 6要因으로 분류하여 피부가 갖는 기능적측면에서, 착용한의복중 용도에 따라서 선택동기가 다르고 또 같은 종류의 의복일지라도 피부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피부가 갖는 기능이 달라진다고 생각되어 衣服種類別 着用順位別로 결과분석 하였다.

着用感에 대해서는 14개의 調査項目을 설정하여 착용감의 良好·不良으로 나누어 총 27개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부터 着用順位別로 2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着用感要求度는 着用感良好의 14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3>.

<표 1> 着用衣服의 種類

상반신의 의복		하반신의 의복	
1) 브래지어	2) 린넨셔츠	1) 팬티	2) 칼셋
3) 속치마	4) T-셔츠	3) 속치마	4) 바지
5) 블라우스	6) 잠바	5) 치마	6) 원피스
7) 조끼	8) 웨타	7) 코트	8) 양말
9) 자켓	10) 가디건	9) 스타킹	10) 기타
11) 소매없는 원피스	12) 원피스		
13) 운동복	14) 반코트		
15) 코트	16) 기타		

〈표 2〉 착용할 때의 선택동기(착용선택동기)

要 因	項 目
生理衛生	1) 피부감촉이 좋으므로 2) 생리위생면을 고려하여
整 容	3) 체형보정을 위해 4) 몸에 잘 맞으므로
機 能	5) 機能的, 活動的이므로 6) 오늘의 생활목적에 맞으므로
心 理	7) 디자인이 좋으므로 8) 색 무늬가 좋으므로 9) 유행하고 있으므로 10) 유명메이커 상품이므로 11)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므로
管 理	12) 구입하기 쉬우므로
기 타	13) 기 타

調査項目은 4要因으로 분류하여 衣服種類別, 着用順位別 실루엣(silhouette)別로 결과 분석하였다.

3) 外衣의 실루엣

最外衣에 해당되는 실루엣을 〈그림 1〉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4) 內衣類의 着用感

현재 착용하고 있는 런닝셔츠와 팬티에 대해 衛生的 측면에서의 着用感 13개의 관능용어 항목을 설정하여 질문하였고 각 질문은 5단계로 평정하였다(표 4).

3. 資料分析

着用衣服種類別, 着用順位別의 着用基準과 着用感에 대해 각각 평균을 계산하였고 內衣類의 쾌적감과 着用感조사항목의 상관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통계처리는 전남대학교 전자계산소를 이용하였다.

Ⅲ. 結果 및 考察

1. 着用選擇動機

1) 內衣種類別 着用選擇動機

〈표 5〉를 보면 상의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브래지어는 체형보정을 위한 整容面이 가장 높았고 런닝셔츠는 生理衛生面이 속치마, T-셔츠는 機能面이 높았다. 하의를 보면 팬티 속치마는 生理衛生面이 높고 물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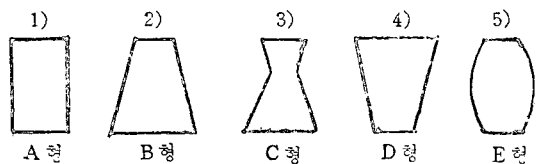
〈표 3〉 착용했을 때의 느낌(着用感)

要 因	項 目
運動的	1) 활동하기 편하다. 2)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
材料物性的	3) 구김이 잘가지 않는다. 4) 신축성이 있어 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5) 피부감촉이 좋다.
心理的	6) 색, 무늬, 디자인이 좋다. 7) 남이 칭찬해준다. 8) 개성적이다. 9) 유행하고 있다.
衛生的	10) 의복형, 재질이 환경기온에 적합하다. 11)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흡습성이 있다. 13) 의복중량이 적당하다.
기 타	14) 기 타

〈표 4〉 內衣類의 着用感 調査項目

- 1) 얇다.
- 2) 중량이 가볍다.
- 3) 색, 디자인이 좋다.
- 4) 의복형이 환경기온에 적합하다.
- 5) 청결하게 보인다.
- 6) 적당한 신축성이 있다.
- 7) 피부감촉이 좋다.
- 8)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9) 재질이 생리, 위생면에서 적합하다.
- 10) 활동하기 편하다.
- 11) 사이즈가 몸에 잘 맞는다.
- 12) 필링(보풀)이 생기지 않는다.
- 13) 전체적으로 볼 때 쾌적하다.

체형보정을 위한 整容面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機能面이, 치마는 心理面이 높다. 이로서 대체로 內衣類는 生理衛生面, 整容面을 外衣類는 機能面, 心理面을



〔그림 1〕 外衣의 실루엣(silhouette)

〈표 5〉 衣服種類別 着用選擇基準

(女子)(단위 : %)

衣服 種類		生理衛生	整 容	機 能	心 理	管 理	기 타
上 衣 類	브 레 지 어	22.5	49.1	21.3	6.1	0.3	0.8
	런 닝 셔 츠	48.8	16.1	19.9	13.9	0.4	1.0
	속 치 마	34.5	14.6	38.4	11.7	0	0.8
	T-셔츠	1.9	14.5	38.1	34.6	10.7	1.5
	블 라 우 스	4.5	22.9	26.4	37.8	3.9	4.6
	잠 바	0	35	10	50	5	0
	소매없는 원피스	0	10	65	25	0	0
	조끼 원 피 스	0 8.3	50 25	0 16.7	50 43.8	0 0	0 6.2
下 衣 類	팬 티	67.8	14.9	11.9	3.4	0.7	1.3
	콜렛	17.6	53.4	18.2	10.3	0	0.5
	속 치 마	33.1	14.4	27.6	18.5	1.4	5.0
	바 지	8	21.6	33.8	30.1	5.1	1.4
	치 마 원 피 스	6.6 5.4	21.2 25.8	22.1 25.9	44.2 39.6	3.2 0	2.7 3.3
양말류	양 말	36	5.2	24.3	23.6	5.5	5.4
	스 타 킹	35.7	3.6	28.6	17.9	14.2	0

(N=501)

〈표 6〉 衣服種類別 着用選擇動機

(男子)(단위 : %)

衣服種類		生理衛生	整 容	機 能	心 理	管 理	기 타
上 衣 類	런닝셔츠	19.9	36.8	9.8	3.9	1.6	28.0
	T-셔츠	10.9	20.3	22.5	31.3	5.8	9.2
	조끼	12.5	12.5	75	0	0	0
	잠바	7.5	24.1	17.5	29.2	9.2	12.5
	웨타 운동복	2.8 0	8.3 33.4	18.0 16.7	51.4 16.7	5.6 33.4	13.9 0
上 衣 類	팬티	43.8	23.4	17.7	6.0	3.6	5.5
	바지	5.0	22.7	26.3	30.9	6.1	9.1
양말류	양 말	37.3	17.1	17.4	14	6.3	7.9

(N=513)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바지는 活動面을 중요시하고 치마는 심미적유행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內, 外衣類 모두 管理面이 낮게 나타났는데 일본의 研究結果²⁾에 의하면 管理面이 품질요구도로써 높은 항목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衣服을 구입하거나 착용시에 〈표 6〉의 男子의 경우를 보면 런닝셔츠는 整容面, 팬티는 生理衛生面이 높고 T-셔츠, 잠바, 웨타, 바지의 外衣類는 심리면이 높으며 管理面은 女子와 마찬가지로 낮다. 그러나 운동복은 整

容面과 管理面이 높게 나타났다. 양말류는 男女 모두 生理衛生面이 높았는데이는 계절로 보아 효과적인 方法이라고 사료된다.

이로 볼 때 內·外衣類의 着用選擇動機가 男女 모두 비슷하고 대체로 용도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女大生을 中心으로 內衣類는 生理衛生面이 外衣類는 心理面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³⁾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후기와 중기의 청소년사이의 衣生活에 대한 價値觀과 意識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着用順位別 選擇動機

着用順位가 증가함에 따라 着用選擇動機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착용빈도수가 많은 外衣類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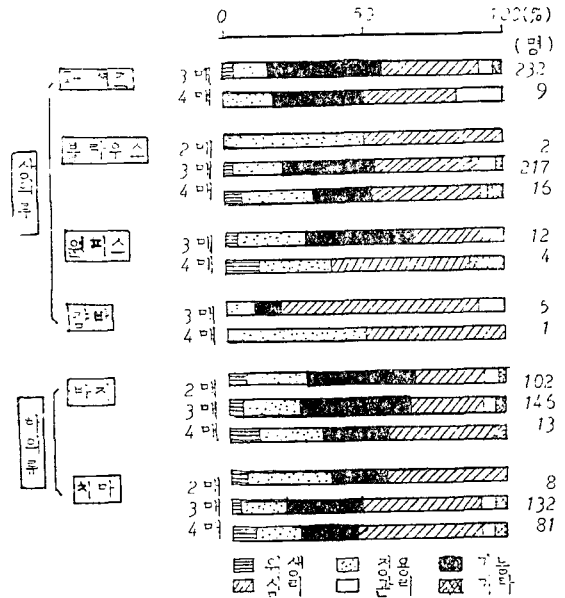
<그림 2>를 보면 着用順位가 증가할수록 最外衣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데 T-셔츠는 外衣用일수록 心理面이 증가한다는 일본의 연구결과³⁾와는 달리 심리면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체형보정을 위한 整容面과 管理面이 증가하였다. 블라우스는 着用枚數가 증가할수록 衛生面과 機能面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학복으로서의 실용적인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원피스는 心理面이 증가한 반면 機能面이 감소하였고 잠바는 整容面이 증가하였다. 下衣의 바지는 큰 변화는 없으나 着用枚數가 증가할수록 機能面이 감소하고 心理面이 증가하였고 치마 또한 같은 현상을 보였다. 이로서 치마는 心理面을, 바지는 機能面을 중요시하나 着用枚數가 증가할수록 심리면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男子의 경우를 보면 上衣의 T-셔츠는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衛生面이 감소하고 心理面이 증가하였으며 잠바는 機能面과 心理面이 증가하였다. 웨타는 心理面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心理面이 증가하여 男子들의 外衣類에 대한 美的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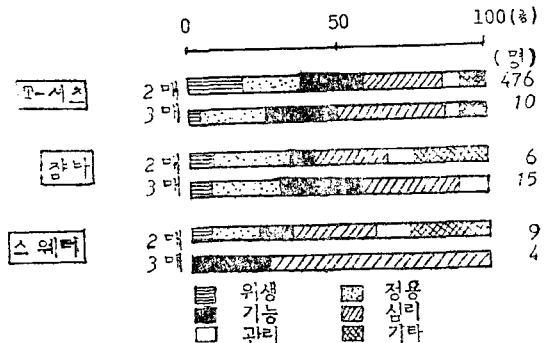
2. 着用感

㉠ 衣服種別 着用感

<표 7>을 보면 整容의 기준을 중요시하는 브래지어는 材料物性的着用감이 높고 生理衛生面을 중요시하는 런닝셔츠, 속치마는 衛生的着用감이 가장 높았다. 대체로 이들은 心理的着用감은 낮으며 T-셔츠, 블라우스, 잠바는 心理的着用감이 높고 원피스는 材料物性的着用감이 높았다. 이로서 內衣類는 材料物性的, 衛生的着用감을 중요시하고 外衣類는 心理的着用감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下衣의 경우, 팬티는 衛生的着用감이, 쿨넷 속치마는 材料物性的着用감이 높고 心理面은 대체로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지는 運動的着用감이, 치마는 心理的着用감이 높게 나타나 일본의 연구결과²⁾와 일치하고 있다. 着用감이 나쁜 것은 外衣類보다는 內衣類가, 또 上衣類보다는 下衣類가 높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衛生的, 運動的着用감이 나쁘게 나타났다. 양말류를 보면 양말은 衛生的, 스타킹은 心理的着用감이 높는데 스타킹은 치마와 같이 착용하



[그림 2] 着用順位別 着用基準(女子)



[그림 3] 着用順位別 선택基準(男子)

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경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표 8>의 男子의 경우를 보면 런닝셔츠 T-셔츠 조끼 운동복은 運動的着用감이 가장 높고 잠바, 웨타등은 心理的着用감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內衣類는 心理的着用감이 낮고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材料物性的着用감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의에에서는 팬티, 바지 모두 運動的着用감이 높았다. 이로부터 볼 때 남녀 모두 上·下衣類가 運動的着用감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일본의 연구결과³⁾와 일치하는데 이는 통학복으로서 活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着用方法이라고

〈표 7〉 衣服種類別 着用感

(女子)(단위 : %)(N=501)

衣 報 種 類	*	運動的	物性的	心理的	衛生的	기 타	
上 衣 類	브래지어	○	35.8	40.3	1.5	18.0	0.9
		×	1.4	0.7	1.0	0.4	
	런닝셔츠	○	18.7	40.8	0.7	38.8	0.3
		×	0.2	0	0.4	0.1	
	속치마	○	23.4	24.2	1.7	37.5	0
		×	0	0	0	13.2	
	T-셔츠	○	26.0	10.5	39.2	22.2	0.6
		×	0	0.3	0.6	0.6	
	블라우스	○	27.9	14.6	28.1	24.2	4.1
		×	0.2	0.3	0.4	0.2	
조끼	○	25	0	25	50	0	
	×	0	0	0	0		
잠바	○	50	0	45	5	0	
	×	0	0	0	0		
소매없는 원피스	○	30	5	60	5	0	
	×	0	0	0	0		
원피스	○	81.2	35.4	12.5	12.5	0	
	×	6.3	0	0	2.1		
下 衣 類	팬티	○	26.3	31.5	1.4	38.5	1.2
		×	0.4	0.1	0.5	0.1	
	콜셋	○	17.6	38.9	6.4	22.3	1.6
		×	6.9	1.9	0.9	3.3	
	속치마	○	20.0	25.3	5.5	42	0.7
		×	3.4	0.3	1.3	1.5	
	바지	○	42.8	9.3	22.7	21.7	0.5
		×	1.3	0.7	0.7	0.3	
	치마	○	19.9	12.3	32.0	29.2	1.2
		×	0.8	0.6	0.6	3.4	
원피스	○	19.2	16.2	40.9	22.1	0	
	×	0	0	1.6	0		
양 말 류	양말	○	25.6	24.7	10.4	32.8	32
		×	1.2	0.9	0.8	0.4	
	스타킹	○	7.1	35.7	32.2	25	0
		×	0	0	0	0	

*

○: 着用感良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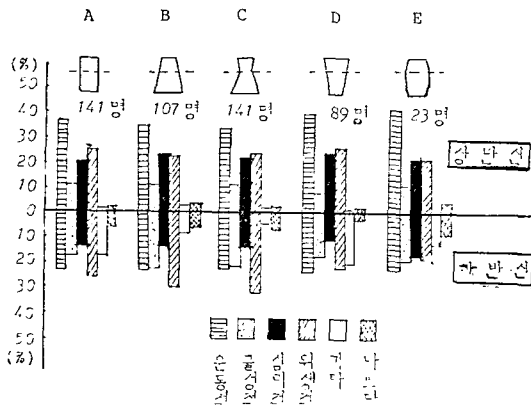
×: 着用感不良

사료된다. 또 外衣類가 心理的着用感이 높은 것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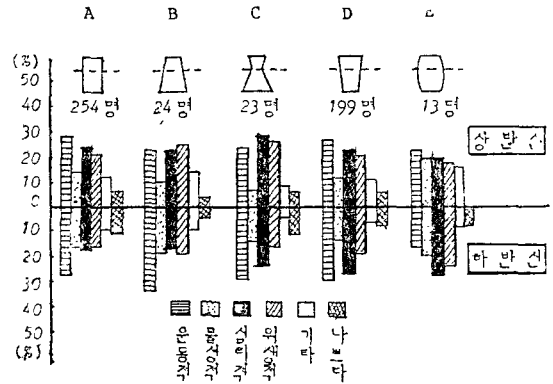
2) 着用順位別 着用感

着用順位の 변화에 따른 着用感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를 보면 대체로 着用順位에 따른 着用感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上衣의 T-셔츠는 착용매

수가 증가할수록 運動的着用感이 감소하고 心理的着用感이 크게 증가하였다. 블라우스의 경우는 큰 변화는 없는데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管理的着用感이 감소하였고 원피스는 運動的衛生的着用感이 감소하고 材料物性着用感이 증가하였다. 下衣의 경우 바지는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運動的着用感이 증가하고 치마는 心理的着用感이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변화양상은 뚜렷하지



[그림 6] 실루엣과 겉옷의 着用感(女子)



[그림 7] 실루엣과 겉옷의 着用感(男子)

많았고 E형이 적었다. 이는 통학복으로서의 가장 일반적인 실루엣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루엣별 着用感を 보면 상반신은 運動的着用感이 가장 높고 材料物性的着用感이 가장 낮다. 그리고 하반신은 D, E형은 運動的着用感이 높고 A, B, C형은 衛生的着用感이 높았다. 그리고 하반신이 상반신보다 材料物性的着用感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C, D, E형은 유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心理的着用감이 낮은 것은 통학복으로서 유행을 크게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男子의 실루엣과 外衣의 着用感인데 실

루엣은 A형이 가장 많고 D, B, C, E형의 順으로 낮았다. 실루엣이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상반신은 C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運動的着用감이 높고 材料物性的着用감이 낮았으며 C형은 心理的着用감이 높았다. 하반신은 E형을 제외하고는 運動的着用감이 높고 E형은 心理的着用감이 높았으며 대체로 C, D, E형이 A, B형보다 心理的着用감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C, D, E형이 유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하반신 모두 運動的着用감이 높은 경향이며 상반신이 하반신보다 心理的着用감이

<표 9> 內衣類의 쾌적감과 항목별 着用感과의 상관관계

着用感	종합적으로 볼 때의 쾌적감			
	女子(N=501)		男子(N=513)	
	런닝셔츠	팬티	런닝셔츠	팬티
얇다	.1066	.1144	.2758	.2215
중량이 가볍다	.2267	.2468	.2708	.3552
색 디자인이 좋다	.1557	.2131	.2807	.2924
의복형이 환경기온에 적합하다	.4003	.5345	.4042	.4174
청결하게 보인다	.3648	.4885	.4538	.5007
적당한 신축성이 있다	.1917	.3976	.3594	.4216
피부감촉이 좋다	.4834	.5833	.4184	.4036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2967	.4638	.2820	.3029
재질이 생리위생면에서 적합하다	.4194	.5866	.4206	.4199
활동하기 편하다	.4861	.5283	.4862	.4608
사이즈가 몸에 잘 맞는다	.4597	.5378	.3192	.4166
필옌(보풀)이 생기지 않는다	.4614	.4907	.3072	.3188

***All

***: $p < .001$

높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外衣에 나타나는 心理面을 하반신보다 상반신에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⁹⁾ 外衣의 心理面을 상반신보다 하반신이 높게 반영한다고 한 결과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4) 內衣類의 着用感

최근 內衣의 着用이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현상은 男子에게서 현저하다. 그런데 고온의 여름인 경우에 內衣를 착용하지 않으면 의복내온도가 고온다습하게 되어 衛生的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¹⁰⁾. 그래서 內衣類가 위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는 內衣類의 쾌적감과 項目別着用感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男女 모두 런닝셔츠는 「활동하기 편하다」 항목과의 상관이 높고 「얇다」와 「중량」이 가법다. 항목이 가장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팬티는 女子의 경우 「재질이 생리위생면에서 적합하다」項目이 가장 높고 男子는 「청결하게 보인다」項目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男子, 모두 「얇다」項目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로서 內衣類의 쾌적감은 「활동하기 편하다」項目과 「재질이 생리위생면에서 적합하다」項目이 쾌적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3. 快適을 위한 着用感要求度

着用感의 要求度에 관해서 衣服種類別 着用順位別로 조사한 결과, 男女 모두 실제로 느끼는 착용감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着用感은 外衣類는 心理面이 높게 나타났지만 着用感要求度는 衛生的着用감이 높아 동락복으로서 위생적 착용감이 쾌적한 착용방법으로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고 또,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衣生活을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IV. 結論 및 제언

本 研究는 男女 高等학생의 통학복에 대한 着用選擇動機와 着用感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衣服의 着用이 신체에 부착된 內衣일수록 着用選擇動機는 露空面, 生理衛生面이 높고 着用感은 材料物性的, 衛生的着用감이 높다. 그리고 같은 의복중에서도 착용메수가 증가할수록 선택동기는 機能面, 心理面이 높고 運動的, 心理的着用감이 높다. 이는 男女 모두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2. 下衣類는 치마형식의 선택동기는 心理面이 높고 着用感은 心理的着用감이 높으며 바지형식의 선택동기는 機能面이 높고 着用感은 運動的着用감이 높게 나타났다.

3. 最外衣의 실루엣은 男女 모두 A형이 가장 많았고 실루엣에 대한 外衣의 着用感은 上·下半身 모두 運動的着用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반신이 하반신보다 心理的着用감이 높아 外衣의 心理面이 상반신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4. 內衣類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때의 쾌적감과 각 관능용어항목별 착용감과의 상관계수를 조사한 結果 「재질이 생리위생면에서 적합하다」項目과 「청결하게 보인다」項目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쾌적감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5. 衣服種類別, 着用順位別 着用感要求度는 실제로 느끼는 착용감과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外衣類의 경우 衛生的着用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서 高等학생의 衣生活은 실용적인 着衣方法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계절별 등의 폭넓은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여러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1) 田中道一, 衣服の着心地,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5, 256~265, (1974)
- 2) 伊藤五子 外 9人, 衣生活(における)着裝の實態(第1報),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3, 105~112, (1982)
- 3) 伊藤五子 外 9人, 衣生活(における)着裝の實態(第2報),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3, 153~158, (1982)
- 4) 水梨サワ子 外 3人, 寢具の着心地に關する調査研究(第1報),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3, 274~281, (1972)
- 5) 水梨サワ子 外 3人, 寢具の着心地に關する調査研究(第2報),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3, 32~328, (1972)
- 6) 大塚美智子, 和報の着心地お考える(第1報), 「衣生活研究」, 235, 48~52, (1981)
- 7) 大塚美智子, 和服の着心地お考える(第2報), 「衣生活研究」, 236, 54~57, (1981)

- 8) 庄司他, 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第1報), 「織消誌」, 9, 474, (1968)
- 9) 庄司他, 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第3報), 「織消誌」, 10, 274, (1969)
- 10) 柳許子, 婦人用下着—最近の着用動向と素材—,
- 11) 原田隆司 外1人, パンティストッキングの着用感
「織消誌」, 23, 135~144, (1982)
-